

# 국가어항시설물 안전점검 착수

## 올해부터 협회 고유 업무로 자리매김

**2006**년도 105개 국가어항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가 3월 3일 부산 다대포항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된다.

협회가 지난해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위탁계약방식으로 변경되어 협회의 고유 업무로 자리잡았다.

협회는 어항관리팀을 신설, 안전점검 경력자 및 수중조사를 위한 잠수기능 자격소지자 등 전문인력 10명을 채용하여 어항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.

주요업무는 105개 국가어항 623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노후화가 의심되는 시설물에 대한 수중조사로 나누어진다.

연 2회(상·하반기)에 걸쳐 시행되는 정기점검은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시설물의 기능과 상태를 조사하는 사전조사, 적정장비 및 기구를 투입하여 정확한 조사를 실

시하는 현장조사,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종합평가 단계를 거친다.

이렇게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현 상태와 이전의 상태를 비교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여부를 판별하고, 필요시 개략적인 보수보강안을 제시한다.

수중조사는 상반기 5~6월 강릉 금진항

과 여수 안도항, 하반기 7월 남해 물건항과 북제주 김녕항에서 실시될 계획이다.

어촌 어항법 제58조 1항, 자연재해 대책법 제 3조의 규정에 의거한 국가어항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는 어항구조물의 안전실태를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수산기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.

## 어항 내 매몰실태 조사 실시

**한** 국어촌어항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와 '어항 정밀조사'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전남 고흥군 발포항 등 13개 국가어항에 대한 항내 매몰실태 조사에 착수했다.

올해 12월까지 수행되는 이 업무는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어항 내 매몰토사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, 매몰토사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

집, 이를 바탕으로 항내 매몰토사를 체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.

이 업무는 먼저 13개 항에 대한 어항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에서 수심측량을 한 뒤, 측량된 자료를 바탕으로 매몰상태를 분석, 토사매몰이 심각한 어항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.

## 어항청소선·크린오션호 '06년 업무 시작

### 전국 연안수역 정화 및 청항 활동

**한** 국어촌어항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어항 청소선 7척은 지난 20일 목포연안, 여수 국동항, 통영 동암항·죽림만, 포항연안, 양양 수산항에서 청항 및 해양정화 작업을 시작으로 2006년도 업무에 들어갔다.

어항청소선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동·서·남해에서 국가어항을 중심으로 척당 100일씩 오폐물, 부유물 및 항행장애물 수거 등 연안수역 정화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.

올해 어항청소선 운영의 중점 추진방향은 △국가어항을 중심으로 한 연안수역의 정화 △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△홍보 및 예방지도활동 강화 등이다.

이에 따라 105개 국가어항 중 청소가 필요한 66개항과 지자체 및 수협이 요구



하는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 28개항, 인근 연안수역을 중심으로 청항 및 해양정화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.

또 지자체, 수협, 해경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, 항내 청소수거물의 처리와 어항 내 청소업무 시, 유류 오염사

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.

이와함께 어업인의 의식고취를 위해 항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해양환경보호 문구가 쓰여진 현수막을 선박에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.

한편 다가능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'크린오션' 호는 3월 1일부터 인천 남항부두 앞 해상에서 오폐물 수거작업을 시작으로 올해 업무에 들어간다.

'크린오션호'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60일,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일, 덕적도 및 승봉도 50일 등 총 130일 동안 서해안 일대 어항·항만 및 인근해 해역에서 기본정화업무를 수행하고 주변 어장정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.